

국제관계의 이론 (2)

신현실주의, 신자유주의, 구성주의

신현실주의 (Neo-realism)

- 현실주의의 이론적 흐름 (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시대적 변천): 현실주의 안에서도 시대에 따른 이론 자체의 발전 뿐만 아니라 미-소 냉전과 같은 새로운 국제정치의 상황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.
- 현실주의의 이론적 흐름은 크게 두 가지, 즉 고전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(또는 구조현실주의)로 구분. 대표적인 고전현실주의 이론가로는 모겐소 (Hans J. Morgenthau)를, 대표적인 신현실주의 이론가로는 왈츠(Kenneth Waltz)를 들 수 있다.

월츠의 구조현실주의 (structural realism)

- 1979 년, UC, Berkeley 정치학 교수인 케네스 월츠(Kenneth Waltz)는 그의 저서 '국제정치 이론' (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, 1979)에서 국제정치학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.
- 월츠는 고전현실주의 이론의 대부분을 수용하였지만, 국가간 갈등이 '인간 본성'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, 그리고 국가의 행동을 '개별 국가의 속성'(지도자들의 인식, 또는 국가들의 동기 등 단위 수준의 요소)에서 찾고자 한 기존의 방법론은 비과학적인 것이라며 거부. 그는 대신 무정부적인 국제체제 내의 '**권력 배분 상태**'(**구조적 요소**)를 국가 행위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.
- 이처럼 월츠의 이론이 국제체제의 구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흔히 '**구조현실주의**'(**structural realism**)라고 부르는데, 모겐소의 고전현실주의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'신현실주의'(Neo-realism)라고도 부른다.

월츠의 구조현실주의의 논리

- (1)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각 국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동일. (여기서 모든 국가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개별 국가들이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특징이 부과하는 비슷한 제약과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)
- (2) 따라서 국제정치의 성격은 각 국가의 속성이 아니라 강대국의 숫자로 결정되는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해서 더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. 이러한 '국제체제의 구조'에는 세 가지 유형, 즉 단극체제, 양극체제, 그리고 다극체제가 있는데, 이 중 **양극체제가 다른 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**이다.
- (3) 양극체제에서는 두 강대국 사이의 **불확실성의 절대량이 적으며**, 두 개의 국가에 힘이 집중되어 있어서 **동맹관계가 안정**되고 따라서 국제체제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. 반면에 단극체제에서는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 패권국이 불필요하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,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다극체제에서는 세력균형을 위한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점 때문에 국제 불안정이 증가.
- (4) 따라서 월츠는, 양극체제인 냉전은 매우 안정적인 체제이고, 미-소 양국만 서로 대립하고 강대국의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대규모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. 또한 월츠는 탈냉전시대 유럽이나 일본의 부상에 따른 다극체제의 형성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 예상.

신자유주의 (Neo-liberalism)

- 20 세기에 들어 자유주의적 사고는 1 차대전 이후 시기에 많은 서방국가의 정책결정 엘리트들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. 그러나 1 차대전 이후 자유주의에 입각한 평화유지 가능성은 '국제연맹'(League of Nations, 1920-46)의 실패와 2 차대전으로 무산되었고, 2 차대전 종전 이후의 미-소간의 치열한 냉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'(신)현실주의' 국제정치이론이 국제정치학계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.
- 그러나, 협력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**90년대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 협력과 제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다시 주목** 받게 되었다. 즉, 안보, 무역, 금융, 환경, 인권 등 다양한 세계 이슈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대폭 증대되었는데, 이를 설명해 줄 새로운 자유주의 이론이 필요했던 것.

코헤인의 신자유제도주의 (Neoliberal Institutionalism)

- 신자유주의(또는 신자유제도주의)의 대표적인 학자는 1970 년대, 조셉 나이(Joseph Nye)와 함께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로버트 코헤인(Robert Keohane)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이다.
- 코헤인은 1984 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에서('After Hegemony', 패권 이후) 국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며, 비국가행위자(non-state actors)는 국가의 하위에 존재한다는 점, 그리고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자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실주의 시각을 일부 수용.
- 하지만, 코헤인은 동시에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주장, 즉 '**국제제도**'를 통해 각 국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국제질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. (이처럼 코헤인의 이론이 '제도'를 강조하고 중시하기 때문에 '**신자유제도주의**'(Neoliberal institutionalism) 또는 간단히 '제도주의'(institutionalism)라고도 불린다.)

코헤인의 신자유제도주의의 논리

- 상호의존'(interdependence)과 협력-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이란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상호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한 국가의 입장이나 정책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다른 국가도 그 변화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. 상호의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들은 **상호이익(mutual gains)을 위해 협력할 동기**를 얻게 되는데, 문제는 무정부상태하의 이기적인 행위자인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**불신(배신, 무임승차 등의 가능성)으로 인해 실제로 협력을 증대하기가 어렵다**는 것.
- 제도의 필요성- 협력으로 인한 상호이익을 현실화 시켜줄 도구로서, 즉 무정부상태하의 이기적인 국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**국제레짐과 국제기구와 같은 '국제제도'가 필요**. 달리 말하면, 국가 간 협력의 수단 또는 일탈에 대한 규제 메커니즘으로서 '제도'가 정교하게 발전하면, 이기적인 국가들 간의 '무정부상태에서의 협력'도 충분히 가능할 것.
- [참고] 국제제도(international institutions) / 국제레짐(international regime) / 국제기구 (international organization) – 간단히 말하면, 국제기구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실체이고, 국제레짐은 국가들에 의해 합의된 명시적/ 묵시적인 규칙이나 협정이며,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국제제도이다. 이들은 모두 국가들의 **행동의 기준**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, 믿을 수 있는 **정보를 제공**하고, **불신의 가능성을 줄여줌**으로써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다.

구성주의(Constructivism)

- 국제관계이론에서 기존의 분석 수단인 힘, 국익 등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차원의 이론. 구성주의는 **국가간의 관계나 국익과 같은 개념**은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, 자연물과 같은 이미 주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 **역사적으로 구성된, 사회적 산물**이라는 점을 강조.
- 구성주의에 따르면, 국가들 간의 관계 양상과 그것을 결정짓는 국익이라는 것은 각 사회에 형성된 **정체성, 규범, 공유된 가치체계(이념과 문화)** 등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. 따라서 그러한 요인들(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)을 심도 깊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국제관계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.
- 웬트(Alexander Wendt)에 의해 발전된 이러한 이론은 미소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일어난 유럽의 정치체제 변화를 설명해내면서 각광받기 시작. 구성주의에 따르면 서로를 적 또는 경쟁자로 보던 유럽 국가들이 긴밀한 상호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친구로 여기게 되면서 국가간 협력이 강화된 것. 구성주의는 기존의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잘 설명해내는 장점이 있지만, 어떤 현상에 대한 사후 해석이 아닌 미래 예측에 있어서는 사회과학 이론으로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.